추억의 그림

편집자 註 : 印度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신적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평소 "세월이나 人生은 시위를 떠난, 그런 뜻에서 값진 것인지 함께 동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지난週 한성로타리클럽 週報에 실린 中齋 장충식 前총재님의 글입니다. 우리 클럽 회원들에게만 읽히기엔 아깝다 생각되어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으며 한사람의 超我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는 본보기라 생각해보았습니다.

3650지구 한성로타리클럽 竹林齋 金 武 一

中齋 장 충 식 전총재
한성로타리클럽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로비에는 캐나다의 여류화가 Brooks Babara가 그린 두 개의 그림이 걸려 있다. 하나는 캐나다 록키 산맥 중 Jesper에 있는 한 산봉우리의 설경을 그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의 자작나무 숲을 그린 그림이다. 이 두 그림 중 하나인 록키산의 설경 그림은 30년 전에 내가 직접 캐나다 Jesper시에 있는 쇼핑몰 화랑에서 직접 구입한 그림이고, 다른 자작나무 숲을 그린 그림은 작가 바바라가 나를 위해서 그려 준 그림이다. 1982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夏季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나는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한국선수단 통역 책임자인 현지 교포 한영자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찾았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 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 들렀다가 벽에 걸린 록키산 설경 그림을 보고 탐이 나서 판매하는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값을 물은 즉 미화 2,000 달라 라고 해서 내 수중에는 몇 백 불밖에 없어서 현금을 주고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귀국해서 송금을 할 것이니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영자씨는 곧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지참할 것이니 한국에 가면 그때 잔금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록키산의 설경 그림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학교 어딘가에 걸어놨더니 보는 사람마다 그림이 좋다고 해서 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한영자씨를 통해서 작가의 신상 소식이 전해왔다. 내가 구입한 그림도 1년 내내 쇼핑몰에 걸어놨지만 팔리지 않았던 그림이라 화가는 무척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방값도 여러 달 밀려서 두 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왔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현지인이나 캐나다를 찾는 관광객이 구입하지 않는다는데 의문이 생겼다. 화가 바바라씨는 국적이 미국인데 가족들과 캐나다에 관광차 여행을 왔다가 록키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반에서 남편에게 캐나다에 이주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결국 바바라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만 데리고 Jesper 산골 도시에 와서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고 사는 삶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살지만 그림이 팔리지 않아서 두 딸과 셋방에서 쫓겨날 형편이라고 소식이 전해왔다. 캐나다의 산과 숲과 호수가 아름다워서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면서 캐나다 산골에 파묻혀 살면서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의 그림 애호가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MBC 방송국의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국대학교와 MBC가 공동으로 바바라 화가를 초청하여 서울신문사 화랑에서 캐나다 여류 화가 개인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캐나다에서 팔리지 않은 바바라 여사의 그림이 방송사의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일간 신문사의 사진을 통해서 바바라 화가의 그림이 소개되고 그림 애호가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바바라 여사가 김포 공항에 도착하는 날 나는 그를 영접하러 공항에 나가 처음 만났다. 많은 사진 기자들이 나와서 그녀를 카메라에 담느라 번잡하였다.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적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분이 입고 온 옷이 너무 허름해서 혹 그림 애호가들한테 무시당할까 염려가 되어 어느 양장점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하루 밤 사이에 예쁜 여성 정장을 만들어 선물하였다. 체격은 남성처럼 우람하게 보였으나 서양 미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많은 팬의 시선을 끌었다. 전시회 첫날에는 서울신문사 화랑 전시장에 발을 드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참석하였다. 전시회가 열리는 첫날 주한 캐나다 대사 내외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대사들이 관람차 참석했고 우리나라 정부 요인과 외무부의 고위 간부, 문화관광부의 고위 인사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계 인사들, 특히 화단 유명한 화가들과 그의 문하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전시회 첫날부터 성황을 이루었다. 바바라 여사가 캐나다에서 가지고 온 그림은 15일간 전시하는 기간에 전부 매진되었다. 주한 캐나다 대사는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캐나다 예술가로서는 바바라 여사가 한국에서 처음 갖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행사였으며 캐나다의 명예를 빛낸 분이라고 전시회 첫날 모임에서 바바라 여사를 위해 극찬의 축사를 하였다. 당시 전시회를 통해 매진된 수익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미화 10만달라가 넘었다. 그리고 그림 판매 수입 전액을 바바라 화가에게 증여하였다. 캐나다 대사는 바바라 화가에게 감사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캐나다 정부에 바바라 화가의 공적을 보고하여 캐나다 정부는 바바라 화가에게 캐나다의 명예를 빛낸 화가로서 Alberta 주를 대표하는 화가로 지명하고 캐나다의 알버타주와 우리나라의 강원도가 정식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 해 강원도가 정식으로 바바라 화가를 초청하여 전시회를 가지기로 약정하고 공표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캐나다의 알버타 주 출신의 캐나다 원주민 추장의 후손으로 캐나다 정부의 국회의원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는 날 바바라 화가는 Jesper에서 밴쿠버까지 무려 10여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를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몰고 왔다. 바바라 화가는 기쁨과 행복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로 나를 맞이하여 주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림을 팔지 못해 빚에

계곡의 변신(단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 벽면)

설곡(단국대학교병원 수술실 옆 벽면)

몰려 셋방에서 쫓겨날 불행한 처지에서 한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일로 10만 불의 수입이 생겼고 Jesper에 그의 화실을 마련하고 알버타 주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화가로 지명되면서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나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10여 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으며 다음날 그는 나를 태워 10여시간을 운전하여 Jesper로 달려갔다. 바바라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은인이고 여러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이런 일로 나는 캐나다 원주민출신 추장인 캐나다 국회의원을 사귀게 되었고 그분에게 우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바바라 여사는 새로 마련한 화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이면서 우리 대학 개교 40주년을 기념해서 40장의 그림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8장의 그림이 우송되어 왔다. 그분이 계속 건강을 유지하였으면 그의 작품 40개가 우리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 전에 기부되었을 것이다. 그런 일로 나는 캐나다 원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경영하는 생수회사에 바바라 화가를 소개하여 생수회사의 생산 판매되는 물병 전체에 바바라 화가의 그림을 그리도록 교섭을 해주어서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바바라 여사의 그림이 실린 생수병이 보급되었다. 미국에 수출되는 물병만도 100 만병이 넘었다. 엄청난 수입이 바바라 여사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한 가난한 외국의 화가를 위해 전시회를 열어준 인연으로 하루아침에 유명한 화가로 변신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

어느 날 Jesper에 거주하는 한 교민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바바라 여사가 중병에 시달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바바라의 소원이 죽기 전에 꼭 한번만 나를 보고 싶다고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바바라 화가를 자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분과 회식을 단독으로 한 적도 없었다. 나는 그를 위해서 봉사해준 인연으로 그는 유명한 화가로서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 운명을 바꾸어 놓은 커다란 은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나는 한 교수를 대동하고 캐나다로 달려갔다. Jesper 시립병원에 입원한 바바라 화가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산악지대의 작은 도시에는 그의 병을 치료할만한 전문의가 없어서 Edmonton에 있는 전문의를 특별히 초청하여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고 오래 동안 보고 싶었다고 와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리고는 곧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옆에 있던 주치의와 간호사는 그녀의 운명을 알려주었다.

30년 전의 일이었다. 바바라 여사의 그림은 우리 천안 병원 로비에 걸려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바라 화가의 사연을 아는 사람이 없다.

나 밖에는.. 그래서 추억을 더듬어 글을 남긴다.